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여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0년 6월 1일 (월) 제 795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조영철 · 편집인/ 김병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설교

자숙의 폭풍을 경험하며

<마가복음 14:32~36>

이근수 목사 (사회위원장)



1. 제가 이 원고를 부탁받은 것은 4월23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은 황금연휴가 끝난 5월10일입니다. 그간 발표된 일본정부의 '비상사태선언' 으로 인하여 자숙의 폭풍은 지금도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자숙의 폭풍은 우리들의 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관서지방회 오사카 니시나리(大阪西成)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4월19일에는 극도로 간소화된 예배순서로 약 30분정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26일과 5월3일에는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지방회의 현황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라고 하면 영상예배를 지원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음 두 포인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2. 먼저 첫번째로 예배시간 단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배시간 뿐만 아니라 친교 프로그램이나 제직회 등의 시간도 포함하여 생각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길다', '친교 시간이나 제직회 회의가 귀찮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이런 시간들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이런 시간은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 부담 등을 다 생각하고 최소한의 필요만 채운다면 앞서 말한 대로 예배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짧은 예배시간 안에도 분명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축된 예배도 틀림없는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배에 참석하며 '무미함'을 느낍니다. 비유로 표현하자면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병원 음식과 같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가 관리하는 식단이기에 오히려 더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밥을 먹으면 평소 집에서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고 다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평소의 예배순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부름, 대표기도, 성가대의 찬양, 소식(광고) 심지어 헌금 시간마저도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받고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시하고 무감동했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3. 또 한 가지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교회의 본질과

COVID-19 (코로나19) 감염방지'라는 제목을 붙여보려 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교회의 본질은 '에크레시아(집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 (커뮤니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모이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코로나 감염방지 대책의 기본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자숙의 폭풍 속에서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이라'고 주장해 왔던 교회가 이번에는 '모이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신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혼란스러운 것뿐 아니라 신앙 이해조차도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쉽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신앙의 시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은 사실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선 '개체(단독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굳이 모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양들에게 '모이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들이 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단독자'로서 굳건히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쉽게 신앙 이해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하는 연약함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라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셋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라는 가혹하고 험한 시련 앞에서 근심과 번민에 싸여 괴로워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짊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처럼 우리들을 교회로 모아 주십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에크레시아)은 교리(도그마)가 아닌 은혜의 선물입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을 당연시하고 목사님이나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교회에 다니던 저는 이번 시련을 통해 교회의 존재 의의를 깨닫게 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목사님과 교회에 응석을 부리며 자립(자율)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앙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번역:김성태목사)

韓日对照聖書販売



各ページ左に韓国語(改革改版)、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72ページ
●価格:3,0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对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对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특 집 신형코로나19의 감염 위기와 교회 예배 현상

관동지방회 츠쿠바동경교회 홍성완 목사

3월부터 주일예배는 4월12일 부활주일까지 예배중에 창문을 열고 찬송은 소리를 내지 않거나 허밍으로 하면서 교회에 모일 수 있었으나,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따라, 4월19일부터 YouTubeLive 전송에 의한 영상 중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기도회, 교회학교 어린이예배, 야외예배, 제직회도 중지. 당회는 KakaoTalk를 통해 교회활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중계하는 스태프 간에는 Zoom을 통하여, 찬양팀의 리더 혼자서 프로젝터 화면을 공유하여 찬양 시간을 15분 동안, 교회원 각자는 화면(스마트폰 혹은 PC) 앞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시에 YouTubeLive URL로, 또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교회원에게는 Line을 통해 알려 예배에 대비하도록 통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중계하는 관계로 프로젝터 화면에 찬양팀에 의한 찬양, 예배에의 부름과 교독문, 예배성경은 일본어로도 볼 수 있도록 마련. 그러나, 주일예배 설교만은 토요일에 일본어로 설교를 녹화하여 홈페이지에 YouTube URL을 올려서 일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교회원들이 주일 예배 때에 리얼타임으로 시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물론 원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설교원고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관동지방회 요코하마교회 이명충 목사

요코하마교회는 현재(5/17)도 예배당에서의 주일예배(11시)를 계속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YouTube로 라이브 방송도 개시했습니다. 보통 80명 정도가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 왔지만, 현재는 약 절반 정도의 신도가 라이브를 보면서 가정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YouTube 라이브 방송은 주일 당일에는 예배 전체를 반복해서 시청 가능. 그 후 편집하여 설교 부분(일본어, 한국어)만 시청 가능하게 설정. 예배 출석 여부는 최종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주보는 화상으로 단체 채팅방에 파일을 송신·공유. SNS 미사용자에게는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의 대응으로서는 알코올 소독액 비치, 마스크 준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창문의 개방·환기, 간격을 유지한 착석 등. 교회학교도 예배는 중지하고 분반 성경공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회 도요타메구미전도소 이진용 목사

저희 전도소는 신도수가 많지 않습니다. 주일에 모이는 평균 인원이 10여명 정도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위생 수칙을 지키고, 혹시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권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 예배순서, 기도문, 찬양 악보, 설교내용의 요약이 적혀 있는 별도의 말씀 카드를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약식으로 진행했으며, 예배외의 모든 모임은 취소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를 하고 성경공부를 했던 지난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어려움이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중부지방회 나고야교회 김명균 목사

평상시 주일예배 참석 인원은 130~140명입니다. 2월2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예배당 입구에 알코올 소독액을 비치하였고, 3월8일 주일에는 신형 코로나 19 감염 예방에 관한 동영상 보고 그 날부터 주일 오전예배만 드리며 성가대의 찬양 중지, 오후예배와 기도회 및 모임을 중지하였다. 3월달 예배 참석 인원은 평균 90명 정도였습니다.

4월19일부터는 교회에서의 오전 예배를 중지하고 동영상을 녹화해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였으며, 인터넷상으로 예배가 불가능한 분들에게는 미리 주보와 설교 요약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필요를 만드시 채워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5월14일 아이치현 긴급사태 선언은 해제되었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5월31일까지는 지금처럼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모르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주일은 예배 시간에 맞추어 스크린에 유튜브를 틀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계속적인 감염 예방에 힘쓰면서, 오전 예배만이라도 모임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신형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향후 예배와 복음전도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 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서지방회 오사카교회 정연원 목사

코로나 감염이 일본에 확대되면서 총회장 서신(2020년 2월27일), 大阪府, 大阪市 교육위원회가 등교 중지를 선언함에 따라, 긴급당회(2월27일)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검토한 결과 3월8일(일)주일예배를 합동예배로 1회 드린 후, 모든 예배와 집회와 노인대학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회당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약과 마스크를 준비하여 예배시간에도 착용하는 것과 교회학교의 휴교 결정을 교우들에게 전화, SNS, 교회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3월15일 당회, 구역장의 연석 모임을 통해 교우들의 신앙생활 지도와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7일 긴급사태선언이 발표되면서 12일 부활절 예배부터 전 교인의 교회 출석을 금하고 영상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배는 설교자와 동시 통역자, 반주자, 찬송인도자, 영상담당자, 교회직원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실황을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예배와 동시에 전교우에게 주보 발송과 설교문(한,일어)를 발송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170여명의 교우들에게 매일 성경과 찬송, 목사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예배와 성경공부 자료를 각 가정에서 발송하고, Zoom 영상을 통해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은행, 우편 구좌를 안내하고 교우들은 협력하였습니다. 월간 예산의 50%정도이며, 사태 이후에도 예배에 관해서는 집단 감염을 대비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특히 교회창립 기념주일, 장로 장로식, 명예 직분 추대식이 무기연기된 상황이며 이 사태의 빠른 종식과 환한 교우들의 얼굴을 대하여 예배를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서지방회 교토남부교회

허백기 목사

5월10일 현재, 평소처럼 주일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 4월12일 부활절을 마지막으로 예찬과 성가대, 교회학교는 당분간 쉬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조직의 자주적인 결정을 따른 것입니다. 또 예배실 환기와 마스크 착용, 신도들 사이의 거리 확보에 신경을 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되는 가운데 건강상 리스크를 염려하여 예배를 쉬는 신도가 많아 고령자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3/5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많은 교회가 시도중인 '인터넷중계'를 시행착오 하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금의 급감으로 인한 재정 악화는 현저하여, 부활주일 헌금이 있었던 4월은 겨우 견디었으나 5월부터는 무언가 긴급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재정이 돌아가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귀기울이는 예배의 불을 꺼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리얼'한 예배를 고집해 나갈 것입니다.

서부지방회 무코가와교회

양영우 목사

4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 국가긴급사태 선언에 따라서 영상예배로 주일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른 교회 모든 행사는 100%중지하였습니다.

24일 국가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됨으로 6월부터 주일 오전예배, 잠자자가 작은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주일학교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 신도들이 밀집하는 성가대와 그리고 중식, 오후예배는 당분간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서부지방회 고베교회

한세일 목사

고베교회는 4월12일 부활절 이후로 예배의 지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 반드시 환기를 시작으로 3밀(밀패, 밀집, 밀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목사, 장로, 권사를 중심으로 10명 이하의 인원수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신도들은 인터넷(페이스북, 유튜브)을 통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10명은 매회 체온과 이상을 체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종전의 예배순서는 수정하여 찬양과 송영은 각 1회, 설교는 20분 정도로 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는 모든 신도들이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알콜로 소독을 합니다.

고베교회는 계속되는 국가와 자치체의 발표를 주목하며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5월 중에 비상사태선언이 해제된다면 6월7일부터 시험적으로 모든 신도들과 같이 오전예배 만이라도 드리는 것을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회 벳부교회

조현규 목사

벳부교회는 3월8일(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 가정과 장로 가정, 그리고 반주자만 모이고 있으며, 그 외에 모든 신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주 15명 정도가 접속하여 예배합니다. 잠정적으로 5월 마지막 주까지 온라인예배

를 드리고, 6월 첫 주부터는 모임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고령자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월부터 홀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벳부교회는 교회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고, 청년 위주의 교회이다보니 이전부터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재정적이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며, 이 어려움 또한 이겨내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서부지방회 하카타교회

윤선박 목사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이런 저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후쿠오카현 내의 감염 증가, 교회 인근 복지 시설에서의 감염 보도, 또한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대응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등록 및 아프리 수신이 필요없는(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시간 제한도 없는), youtube를 매체로 선택하고 youtubelive에서 주일 예배를 생방송, 또한 그 녹화를 1주일간 공개하고 같은 말씀과 기도 시간을 나누어 왔습니다.

각 가정이라는 떨어진 장소에서의 예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가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고, 해외에 사는 형제 자매들이 예배를 보고 있다는 연락을 받거나 하는 일을 통해 공동체가 만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알았습니다. 또한 교회원들이 서로 도우면서 각 가정에 생활 지원도 하는 등,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는 것, 그리고 반드시 새 생명을 보여주신다는 복음을 다시 체감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회 오키나와교회

곽용길 목사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3월말부터 미군가족들은 종교행사, 식당, 대형마트 등의 출입이 금지되고 일본 초등학교가 임시 휴교령이 내릴 때 교회는 임시당회를 통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지했습니다.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예배와 좋은 교회의 실시간 예배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4월 한달 정도면 코로나 사태가 줄어들 것 같아서 결정을 했는데 오키나와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5월달도 현장예배를 중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교회는 폐쇄하지 않고 24시간 열어 놓고 오시는 분들은 손 소독과 마스크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코로나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교회 신도들 중에는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실시간 영상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배의 설교를 음성파일로 녹음을 해서 단체 카톡방에 공유해서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시간 예배와 영상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예배가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는 재정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혼련이 되고 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현금생활을 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장파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교회가 위축된 것 사실이지만 현금 생활하는 분들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는 더욱 비대면 사회로 나아갈 것이지만 목사는 하나님을 더욱 대면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 속에서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꺼내 말씀이 없어 기갈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관서신학원

2019년도 졸업식을 거행 본과생, 연구과생 6명이 졸업

2019년도 관서성서신학원 졸업식이 3월22일 오후3시, 본 학원(大阪北部教会)에서 거행되었다.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전염이 확대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졸업생과 관계자만 모여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졸업예배는 본 신학원의 교무 조영철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고, 관서지방회장 임명기목사가 '새 언약의 일꾼들' 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 후, 학원장 김무사목사의 졸업증서 수여와 관서지방회 부회장 김성원장로로 부터 축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理事長 전성삼목사의 축도로 졸업식을 마쳤다.

금년도에 졸업한 신학생은은 본과 졸업생으로 으로서 全珍相(大阪北部教会)、林美善(京都教会)、高榮玉(京都教会) 등 3명이 연구과 수료생으로서 金英姬(浪速教会)、杉安玉惠(大阪北部教会)、尹成花(和歌山第一教会) 등 3명으로 합하여 6명이 졸업하였다.

관서성서신학원은 1984년에 在日大韓基督教会에서 섬길 인제 양성, 교회 봉사를 위한 신도 교육과 훈련, 그리고 신학 형성을 위해 관서지방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고 : 조영철목사)



관서지방회

최충식목사가 소천 오사카KCC간사로서 재일운동에 공헌



지난 4월14일 오사카KCC 주임간사, 히라오카교회 담임목사 등을 역임한 최충식 은퇴목사가 소천하였다. 만82세 였다.

고 최충식목사는 1938년 일본 경도에서 출생하여 동지사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1967년 히라오카교회에 강도사로 부임, 1969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1973년부터 오사카KCC 간사로 재직하면서 출입국관리법안 반대 국제연대회의 사무국장, 오사카공영주택 입주 투쟁의 좌장, 희망의집 카톨릭보육원의 원장, 교토 히가시구조의 지역운동 등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장례는 4월16일~17일, 교토남부교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만연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 가운데 가족장으로 치루어졌다.

(보고 : 허백기목사)

고베동부교회

현승정 명예장로 소천 30년간 장로로서 교회 봉사



神戸동부교회 현승정명예장로가 지난 5월24일 83년의 생애를 마치고 소천하시어, 한승철목사의 사식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故·현승정장로는 1936년 한국의 제주도에서 출생하였으며, 독일 후 立命館대학을 졸업, 1963년 大阪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1991년 神戸동부교회 장로 장립을 받고 2008년에 동 교회의 명예 장로 추대를 받았다.

목사 소식

은퇴인사와 현재의 봉사



박 현 옥 목사

고난 주간과 부활절 시절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유행성 코로나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쫓기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소식과 인사를 드립니다. 소생은 모교인 학교법인 일본기독교단립의 東京神学大学の 신학 교육에 24년 동안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교회 관계는 소속된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 44년간 목사로 섬기고 올해 3월말에 정년 은퇴했습니다. 그 사이에 선교협약에 따라 18년 간 일본기독교단에 국내선교사의 신분으로 東京神学大学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일본기독교단 千歳船橋교회에 2003년부터 15년 동안 담임 목사로 겸무하였습니다.

이제 현역 세대를 마치고 말년을 조용히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전혀 뜻밖의 새로운 교육의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山梨英和学院의 요청을 받아 올해 4월부터 학원장의 직무에 맡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여, 동 학원의 학교 교육과 함께 넓게는 일본의 기독교 교육·선교를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하고자 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기도를 통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연락처》

☎193-0803 東京都八王子市檜原町1811-1

☎·Fax 042-686-3888. e-mail : hwpark1@wine.plala.or.jp

讚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 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 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